

Colossian Week 4 "Mystery + Maturity"

Steve Mitchell

Feb 25, 2024

고린도서 4주차 "신비 + 성숙"

스티브 미첼

2024년 2월 25일

MOVEMENT 1: INTRO

Transition from Church News...How many of you have ever read a Bible verse and thought, "What the heck!?" C'mon, be honest. You can put your hand up. No one's silently judging you. Okay, if not, maybe you've never run across some of these: 여러분 중 몇 명이 성경 구절을 읽고 "뭐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자, 솔직하게 말해 봐요. 손을 들어도 괜찮아요. 아무도 은밀하게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이런 구절을 만난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Exodus 23:19 ...Do NOT cook a young goat in its mother's milk. I've done a lot of wrong things in my life but that's not one of them.

출애굽기 **23:19** "...어미의 젖으로 어린 염소를 삶지 말라." 나는 내 삶에서 많은 잘못된 일을 했지만, 그런 일은 아니었다.

Leviticus 11:13-19 + 29 Don't eat a bat. Okay. Check.

No snacking on weasels, rats, lizards, geckos, skinks, or chameleons either. Maybe also, cats are off-limits, IDK.

레위기 **11:13-19 + 29** "박쥐를 먹지 말라." 알겠어요. 확인.

족제비, 쥐, 도마뱀, 게코, 스킨크, 혹은 카멜레온도 간식으로 먹지 마세요. 아마 또한 고양이도 금지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지만요.

Leviticus 19:19 You can't mix fabrics.. No poly blends, dry fit, or other high-performance athletic wear. Whoopsies, sorry Nike...레위기 **19:19** "서로 다른 천을 섞어서 입지 말라." 폴리 혼방, 드라이핏, 또는 다른 고성능 운동복은 입지 말아야 한다는군요. 어머니, 미안해요 나이키

Leviticus 19:27 Don't...trim your beard. All of you feeling fresh this morning, uh oh!레위기 **19:27** "수염을 깎지 말라." 이번 아침에 상쾌한 기분인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상황이 꽤나 놀랍겠죠!

Exodus 22:2-3 You can only kill a burglar at night. So, if they break in during the day, you make them a meal?출애굽기 **22:2-3** "절도자는 밤에만 죽일 수 있다." 그래서, 만약 그들이 낮에 침입하면, 그들에게 식사를 차려야 하는 건가요?

Our passage for this morning is a *little* bit like some of these.

It begins with an odd reference to suffering...

Turn/scroll in your Bibles to Colossians 1... in your pew Bible, page 833

Let's begin reading together.

이번 아침의 성경 구절은 이 중 몇 가지와 약간 닮았습니다.

이 구절은 고난에 대한 이상한 언급으로 시작됩니다...

성경을 열어 골로새서 1장으로 이동/스크롤 해 보세요... 교회 성경에서는 833쪽입니다.

함께 읽기를 시작해 봅시다.

MOVEMENT 2: OUR JOY IN SUFFERING2: 우리의 고난 속에서의 기쁨

Colossians 1:24

Now I rejoice in what I am suffering for you, and I fill up in my flesh what is still lacking in regard to Christ's afflictions, for the sake of his body, which is the church.

골로새서 **1:24**"지금 나는 너희를 위해 겪는 고난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내 육체에서 기도의 고난에 아직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입니다."

So, let's start by acknowledging that we've all suffered, some more than others.

그러니까, 모두가 어느 정도는 고난을 겪었다는 사실을 인정해 봅시다. 어떤 이는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이 겪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Story: (Riff on more heart here..)이야기: (여기서 좀 더 감동적인 내용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No one finishes their journey through this world without picking up wounds, scars, and the stories those tell.

However, the last thing we normally associate with suffering is "rejoicing."

So, when Paul comes out of the shoot connecting the two — suffering and rejoicing — it's a head-scratcher.

In order to understand him, we need to see that Paul has a particular kind of suffering in mind.

In Colossians 3, Paul writes, "Set your mind on Christ."

The Message version of that verse reads: "...See things from *HIS* perspective."

I like that. Because how we perceive God *IN* our lives has a huge impact on *HOW* we live our lives...

...especially when we consider something that's potentially triggering, like suffering.

So, when Paul starts verse 24 with "now," he's giving us a key to his perspective.

That word could mean "now" as in while I'm sitting in a Roman prison, I suffer...

But given what he's about to share, I believe the "now" is supposed to connect what he's written in the first part of chapter one with what he's about to say.

He's saying, "Hey, all of that stuff I just talked about, here's what it means for you, all of you in Colossae, and me as the Gentile Apostle.

He's saying, "What I suffer now, and what I've suffered in the past, is meaningful because it's part of the birth pains of God's Kingdom.

He 100% believes that Jesus' Resurrection ushered in a new reality **worth suffering for**.

This new reality — the "Kingdom of the Son" as he writes in chapter one — exists in tension with what Paul calls the "dominion of darkness."

The writer of Hebrews puts it this way:

아무도 이 세상을 여행하면서 상처, 흉터, 그리고 그것들이 전하는 이야기 없이 여정을 끝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과 연관 짓는 마지막 것은 보통 "기쁨"이 아닙니다. 그래서 폴이 이 둘을 연결하는 첫 발언을 할 때, 고난과 기쁨을 연결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폴이 특별한 종류의 고난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에서 폴은 "너희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로"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구절의 **The Message** 버전은 다음과 같이 읽힙니다. "그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라."

이 말이 마음에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고난과 같은 유발 요소를 고려할 때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폴이 24절을 "이제"로 시작할 때, 그는 우리에게 그의 관점의 열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는 로마 감옥에 앉아 있는 동안 나는 고통을 겪는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곧 나눌 내용을 고려할 때, "이제"는 그가 제 1장의 처음 부분에서 쓴 내용과 그가 말하려는 내용을 연결하려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저 막 방금 얘기한 모든 것들, 이것이 너희에게 무슨 의미인지, 너희 모두 골로새에 있는 이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이방인 사도로서 말이다.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고, 과거에 겪은 것은 하나님의 왕국의 산 삼질의 일환으로 의미가 있다고." 그는 100% 예수의 부활이 새로운 현실을 열었고 그것을 위해 고난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 새로운 현실 - 그가 1장에서 쓴 대로 "아들의 나라" -은 폴이 "어둠의 주권"이라고 부르는 것과 긴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Hebrews 11:24-26

By faith Moses, when he had grown up, refused to be known as the son of Pharaoh's daughter. He chose to be mistreated along with the people of God rather than to enjoy the fleeting pleasures of sin. He regarded disgrace for the sake of Christ as of greater value than the treasures of Egypt, because he was looking ahead to his reward.

히브리서 11:24-26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는 바로의 딸의 아들로 일컬어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를 받기를 선택하였으며 최악의 순간적인 즐거움을 누리기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치를 애쓰게 여기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연고를 위해 받는 수치를 이집트의 보물보다 높이 여겨 그의 보상을 바라보았습니다.

He chose to be mistreated... *because* he was looking ahead.

Though Moses saw dimly what Paul saw more clearly, their responses are the same.

If this mistreatment, this suffering I experience, moves the needle on the Gospel, bring it on. However, Paul's willingness to suffer wasn't just because he thought it was somehow effective.

He also believed it was meaningful because he was connected to them as part of Christ's Body, the Church. That's the "making up what is lacking" part.

It's hard for us, in our culture, to understand how connected Paul felt to people he'd *never* met.

Listen to how he describes it: 그는 학대를 선택했어요... 앞을 바라보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모세가 풀이 더 명확하게 본 것보다 흐리게 본 것일지라도, 그들의 대응은 같았습니다. 만약 이 학대, 이 고통이 복음의 방향을 향하게 한다면, 그걸 가져오세요.

그러나 풀이 고난을 감수할 준비를 한 것은 그게 어떤 식으로든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뿐만 아니라, 그것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들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부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부분입니다.

우리 문화에서 우리는 절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풀이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들어봅시다:

Colossians 2:1

I want you to know how hard I am contending for you and for those at Laodicea, and for all who have not met me personally. 골로새서 2:1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매들을 위해 얼마나 싸우고 있는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직접 만나지 못한 모든 이들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Paul's perspective — his sense of being borne along with God's saving work, and his devotion to a people he considers as connected to himself as his arms and legs — all of these powerful perceptions move him from disillusionment and despair in the midst of his suffering *to delight*.

풀의 관점 - 하나님의 구원적인 역사와 함께 나아가는 그의 감각, 그리고 자신의 팔과 다리와 연결돼 있다고 여기는 백성에 대한 헌신 - 이 모든 강력한 인식들은 그를 그의 고통 속에서의 환멸과 절망에서 기쁨으로 이끕니다.

Story: my mom's death and community around the CNA's citizenship

이야기: 어머니의 사망과 CNA 시민들을 둘러싼 공동체

It's not some bizarre masochism.

Paul believes that suffering creates a sacred communal space.

It carves out a cavern that the fullness of the Gospel loves to fill.

As we move deeper into this passage, we see that Paul's ambition is never relief from his pain BUT to see these *unseen* people — whom he deeply loves — captivated by God's mystery and moved to maturity.

Let's read verses 25-29. 이것은 어떤 기이한 자학주의가 아닙니다. 폴은 고통이 신성한 공동체 공간을 창출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완전함이 채우기를 사랑하는 동굴을 조각해 냅니다.

이 구절을 더 깊이 탐험함에 따라 우리는 폴의 야망이 결코 그의 고통에서의 해방이 아닌 대신, 그가 깊이 사랑하는 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비에 매혹되어 성숙해지기를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우리는 25-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MOVEMENT 3: MYSTERY + MATURITY

Colossians 1:25-29

I have become its servant by the commission God gave me to present to you the word of God in its fullness—the mystery that has been kept hidden for ages and generations, but is now disclosed to the Lord's people. To them God has chosen to make known among the Gentiles the glorious riches of this mystery, which is Christ in you, the hope of glory.

He is the one we proclaim, admonishing and teaching everyone with all wisdom, so that we may present everyone fully mature in Christ. To this end I strenuously contend with all the energy Christ so powerfully works in me.

골로새서 1:25-29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의해 그 교회의 종이 되어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전하는 데 그 나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는 세대와 시대 동안 숨겨져 있었지만 이제 주의 성도에게 나타내어진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비밀의 영광스러운 부를 이방인들 중에서도 알리려고 택한 것은 그리스도가 너희 가운데 계신 것이 바로 영광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지혜로 모든 사람을 훈계하며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완전케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를 위해 나는 그리스도의 역사로써 내게 역적되는 그의 모든 능력으로 힘써 싸우고 있습니다."

Did you catch the connection in this section?

Paul sees his mission — the sole ambition he's bound to — tied to the mystery of God expressing its power and beauty through a mature local body of Christ.

Let's look at both of these ideas.

First, the mystery is not a riddle. It's a plan.

And the plan is this: "...**Christ in you, the hope of glory.**"

이 섹션에서의 연결점을 포착하셨나요?

폴은 자신의 사명을 본질적으로 유일한 야망에 결부시키며, 그것은 하나님의 신비가 그 아름다움과 능력을 성숙한 그리스도 지방 교회를 통해 표현하는 데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아이디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비는 순수한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이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In Romans 8:17, Paul puts it this way:

로마서 8:17에서 폴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Romans 8:17

Now if we are children, then we are heirs — heirs of God and co-heirs with Christ, if indeed we share in his sufferings in order that we may also share in his glory.

로마서 8:17

"만일 우리가 자녀이면, 그리하면 또한 기업자니,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기업자가 되려면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같이 우리도 그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Whether we talking about suffering or glory, we participate as a people in what God is doing because of our relationship with him AND one another:

Head and body

Rescuer and rescued

Father and children who share an inheritance

God, the Holy Spirit, IN us and WITH us

As this mysterious plan unfolds, its aim is a mature expression of this "hope of glory" through a local body like Colossae.

Like us. Listen to Paul again:

우리가 고난이나 영광에 대해 얘기하든 간에, 우리는 그와의 관계와 더불어 하나님이 하는 일에 참여합니다:

머리와 몸

구원자와 구원받은자

상속을 공유하는 아버지와 자녀

하나님, 성령,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이 신비로운 계획이 펼쳐짐에 따라, 그 목표는 골로새와 같은 지방 교회를 통한 "영광의 소망"의 성숙한 표현입니다.

우리처럼. 다시 폴의 말을 들어봅시다:

Colossians 1:28-29

He is the one we proclaim, admonishing and teaching everyone with all wisdom, so that we may present everyone fully mature in Christ. 골로새서 1:28-29

"그는 우리가 전파하는 이이며,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훈계하며 가르치고자 하는 이이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완전케 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를 위해 나는 그리스도의 역사로써 내게 역적되는 그의 모든 능력으로 힘써 싸우고 있습니다."

So, what does full maturity in Christ look like within a local body?

It looks like a faithful expression of this: 그래서, 지방 교회 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한 성숙은 어떻게 보일까요?

이는 다음과 같은 충성스러운 표현처럼 보입니다:

John 13:34-35

"A new command I give you: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so you must love one another. By this everyone will know that you are my disciples, if you love one another."

요한복음 13:34-35

"새로운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니라."

What could be more glorious than a people who tenderly care for one another with godly affection so genuine that they become a compelling portrait of God's captivating love?

Might that be the very best incarnation of the love God shares so freely with us in the Person of the Holy Spirit?

And might God's glory, the awesome weightiness of his majesty, be best represented by this kind of love — the love of a God who literally IS love?

I believe with all my heart that the answer to those questions is, "Yes."

I also believe if we get this, if we really grasp the vast, compelling nature of God's love for us, then we will be able to see it expressed among us as Jesus commanded.

I am convinced that this is the first step into the maturity Paul invites us.

Consider how he frames this in Romans 5: 무슨 일이 하나님의 사로잡힌 사랑을 생생하게 나타내며 신령한 애정으로 서로 섬기는 백성보다 더 영광스러울까요?

이것이 아니면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나누는 사랑의 가장 훌륭한 화신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 그의 위엄 있는 존엄의 무게가 이러한 종류의 사랑으로 가장 잘 대표될 수 있을까요 - 사랑의 하나님 그 자체?

내 마음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입니다.

또한, 만약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의 방대하고 강력한 본질을 정말로 이해한다면, 그것을 예수가 명령한 대로 우리 중에서 나타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바로 풀이 우리를 초대하는 성숙의 첫걸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를 어떻게 전개하는지 그가 로마서 5장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봅시다:

Romans 5:2-5

And we boast in the hope of the glory of God. Not only so, but we also glory in our sufferings, because we know that suffering produces perseverance; perseverance, character; and character, hope. **And hope does not put us to shame, because God's love has been poured out into our hearts through the Holy Spirit, who has been given to us.**

로마서 5:2-5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안에서 기뻐하노니 또한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나니 고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낳음이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게 함은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넘치게 쏟아 주심이니라.

Notice the progression: suffering for the Gospel's sake, a steady perseverance — all predicated on God's love as disclosed directly by the Spirit.

The love that finds its source in God will always lead us to maturity. 진행 과정을 주목하세요: 복음을 위해 고통을 받고, 꾸준한 인내 - 모두가 성령에 의해 직접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하나님에서 비롯된 이 사랑은 항상 우리를 성숙함으로 이끌 것입니다.

Please screen this pic:

https://drive.google.com/file/d/1C4EugbF1JUEzpToMbv_FPC8k8ui-Abh2/view?usp=sharing



Phia story: "That's a lot of numbers, Gon Gon!" + "I was sick, but I'm better now. I love you, Gon Gon."

이야기: "종종, Gon Gon! 숫자가 많아!" + "나 아팠는데, 이제 괜찮아. Gon Gon, 사랑해."

But love needs tending. It requires care. Listen to how Paul frames this: 하지만 사랑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돌봄이 필요합니다. 폴이 이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들어보세요:

MOVEMENT 4: GARDENING TOGETHER

Colossians 1:29-2:2-5

To this end I strenuously contend with all the energy Christ so powerfully works in me...My goal is that they may be encouraged in heart and united in love, so that they may have the full riches of complete understanding, in order that they may know the mystery of God, namely, Christ, 3 in whom are hidden all the treasures of wisdom and knowledge.(E) 4 I tell you this so that no one may deceive you by fine-sounding arguments.(F) 5 For though I am absent from you in body, I am present with you in spirit(G) and delight to see how disciplined(H) you are and how firm(I) your faith in Christ(J) is. 골로새서 1:29 - 2:2-5

"이 일을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역사로써 내게 역적되는 그의 모든 능력으로 힘써 싸우고 있습니다. ... 나의 목적은 그들의 마음이 격려를 받고 사랑 가운데 연합되어 완전한 이해의 모든 부와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아,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전함은 누구도 아름다운 이론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육체로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지만 영으로서는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가 어떻게 단련되어 있는지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 얼마나 굳건한지 보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

He's pulling out all the stops, "contending" so these churches might attain maturity so they (collectively) can "know the mystery of God, namely Christ..."

He wants them to be encouraged and, here's the kicker, united in love.

There's that word again...love, as in "love one another."

That's how they will *experientially* know this mystery.

This is how the mystery goes from theology to flesh.

There's a miracle in this mystery; God's love in us transforming US.

Later in this letter, Paul tells them that he wants them to wear love like a garment.

It must define the contours of their — and our — body and present it to others in ways that are honorable and attractive.

Love is meant to be beautiful and fruitful. Like a garden.

Last month, Onaje Jefferson led worship here. Some of you remember that day.

Like Paul with the Colossians, Onaje isn't seldom here with us physically.

But he described himself as a "son of this house."

It was here, barely out of his teens, that he first led as a solo, upfront worship pastor. His heart has been knit to this place. 폴은 모든 것을 동원하여 "싸움"하고 있는데, 이는 이 교회들이 성숙함에 이를 수 있도록 하여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비밀, 곧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들이 격려받고, 여기가 핵심인데, 사랑 가운데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그 단어가 나오네요... 사랑, "서로 사랑하라"에서 언급된 것처럼.

이것이 그들이 이 비밀을 경험적으로 알게 될 방법입니다.

이것이 비밀이 신학에서 육체로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이 비밀 속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이 편지의 나중에 풀은 그들에게 그들이 사랑을 못처럼 입도록 원한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그들 - 그리고 우리 - 몸의 윤곽을 정의하고 존경스럽고 매력적인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시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아름답고 풍성해져야 합니다. 마치 정원처럼.

지난 달에 **Onaje Jefferson**이 여기서 예배를 이끌었습니다. 몇몇 분들은 그 날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풀이 콜로새에게 하는 것처럼, **Onaje**는 물리적으로는 자주 함께하지 않지만 여기서 "이 집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묘사했습니다.

그는 십대 초반에 거의 처음으로 솔로로 예배를 이끌었던 곳이 여기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 곳에 얽여 있습니다.

On January 28th, God gave us a word through him.

Onaje said that God has seen the barrenness of the past few years.
That the promises spoken here from decades past still have life in them.
That we were about to enter a Garden Season.
That God is changing the sandy gravel of our recent past into fertile soil.

This encouraging word orbited the metaphor of a garden.

And here's the thing: metaphors matter. They're not just poetic flourishes.

And the Garden season Onaje spoke of — a time of renewed harvest and fruitfulness — that garden requires tending.

It has to mature before it bears fruit.

That garden IS us.

We are the garden AND we tend the garden.
As Paul puts it, we conTEND for the garden.
It will take the energy of Christ, mutual love, discipline, and a firm faith.

God will do his part.

He will turn the sandy gravel into rich soil (Thank you , Jamie Lilley for that!)

He will plant the seed. He already has

He will ..rescue the ones who need rescue

...overcome the dominion of darkness with the Kingdom of light

...turn stone-cold hearts into ones that are warm towards him

And us? We need each other.

The 80-YOs need the 18-YOs.

The grandparents need the grandkids.

Parents and children need one another.

The brothers and sisters of THIS HOUSE need one another if we're going to tend the garden.

Because, and here's the thing: If we don't do this together, we won't do it at all.

폴은 모든 것을 동원하여 "싸움"하고 있는데, 이는 이 교회들이 성숙함에 이를 수 있도록

하여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비밀, 곧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그는

그들이 격려받고, 여기가 핵심인데, 사랑 가운데 연합되기를 원합니다.다시 그 단어가

나오네요... 사랑, "서로 사랑하라"에서 언급된 것처럼.이것이 그들이 이 비밀을

경험적으로 알게 될 방법입니다.이것이 비밀이 신학에서 육체로 이동하는 방법입니다.이

비밀 속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형시키는 것입니다.이 편지의

나중에 폴은 그들에게 그들이 사랑을 옷처럼 입도록 원한다고 말합니다.사랑은 그들 -

그리고 우리 - 몸의 윤곽을 정의하고 존경스럽고 매력적인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시되어야 합니다.사랑은 아름답고 풍성해져야 합니다. 마치 정원처럼.

지난 달에 Onaje Jefferson이 여기서 예배를 이끌었습니다. 몇몇 분들은 그 날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폴이 콜로새에게 하는 것처럼, Onaje는 물리적으로는 자주 함께하지 않지만 여기서 "이
집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묘사했습니다.

그는 십대 초반에 거의 처음으로 솔로로 예배를 이끌었던 곳이 여기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 곳에 엮여 있습니다.

MOVEMENT 5: RESPONSESet up: There's a line in the response song we're about to sing:

"Holy Spirit, you are welcome here."While you sing this or listen and contemplate its meaning.

Ask yourself a question and be open-hearted about God's answer.

How might you welcome the Holy Spirit to lead you into a more mature expression of this beautiful mystery: God in the collective “you?”

5: 대응

준비: 우리가 곧 부를 대응 노래에는 한 줄이 있습니다.“성령님, 당신을 여기에 환영합니다.”이 노래를 부를 때 또는 들을 때 이것을 노래하거나 듣고 그 의미를 숙고하십시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하나님의 대답에 열린 마음으로 살펴보십시오.

성령님이 어떻게 당신을 더 아름다운 비밀의 성숙한 표현으로 인도하실 수 있을까요? 그 모임 안에서 하나님인 "당신" 안에?

BENEDICTION

May you be men and women, brothers and sisters, who embrace whatever life’s adventure brings to you with joy for the sake of the Gospel. May you know the beautiful mystery now revealed — Christ in you — in us — the hope of glory.

And, may you tend the Garden as mature co-laborers, firmly established in your faith, so God’s promised harvest may be abundant!In the name of Jesus, the Messiah. Amen.

축복

당신이 복음을 위해 기쁨으로 삶의 모든 모험을 받아들이는 남자와 여자, 형제와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드러난 아름다운 비밀을 알게 되어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계시는 - 우리 안에 계시는 - 영광의 소망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성숙한 동업자로 정립된 믿음 안에서 정원을 돌보아 하나님의 약속된 풍성한 수확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메시아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